



‘홀수저에서 다이아몬드수저가 됐다.’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4번이나 올랐다.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도 장악하며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했다.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존재가 됐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한때 그룹 해체까지 고민하며 방향해야 했던, 시련의 시간도 있었다.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라서’, ‘아이돌스러운 음악을 하지 않아서’ 주류가 되지 못했던 시절, “꼭 한번 1위를 해보고 싶다”며 작은 꿈을 품었던 시절이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창간 12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 예도 고스란히 담긴 이들의 성장기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기까지 이야기를, 이들의 ‘러브 유어셀프’ 앨범 시리즈 제목을 빌어 되짚는다.

편집 | 최해경·유진한 기자



# “꼭 1위하자” 던 작은 꿈, 세계를 거머쥘다



●기(起)…‘힙합을 무기로 세대의 가치를’

출발은 아침에 왔다. “충알처럼 쏟아지는 편견과 역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우리 세대의 생각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그룹 이름을 지어 데뷔했다. 2013년 6월 데뷔해 한 달 뒤 이들은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다.

무기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힙합이었다. 기획사가 주도하는 천편일률적 음악이 대세를 이루던 시절, 이들은 “우리만의 필살기로 어필하고 싶다. 작사·작곡·프로듀싱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힙합그룹을 오랜 꿈으로 지녔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시혁은 ‘인연’과도 같았다. 2010년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멤버들을 방탄소년단으로 불러 모았다.

하지만 아침과 포부는 현실화하지 못해서 무명의 시간이 이어졌다. 햇수로 3년. 2015년 5월 ‘화양연화 파트1’ 앨범까지였다. 비로소 성공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데뷔 3년차, 아직 이뤄 놓은 게



방탄소년단은 지금도 꿈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 2013년 데뷔 이후 시련도 많았지만 다시 일어났고, 또 일어났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온 길 위로 꿈이 펼쳐졌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로 우뚝 서기까지 과정. 2015년 5월 발표한 ‘화양연화 파트1’ 앨범 재킷. 2017년 2월 처음 시작한 월드투어 ‘월스’. 2018년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무대. 2019년 5월 미국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서 비틀스를 오마주한 무대. (위부터)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때 이들은 미국 진출에 대한 거창한 목표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음악을 꾸준히 하고, 소통하겠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맞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길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轉)…‘코리안 인베이션’ 포문

2018년 5월 ‘러브 유어셀프’ 앨범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까지 한국가수 최초로 4년 연속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세계 대중음악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이제 영어 앨범을 발표하거나 현지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이들에게는 세계 주요 차트가 주요 ‘놀이터’다. 또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100만 팬이 모여든 스타디움 공연도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 DJ 스티브 아오키를 시작으로 할시, 니키 미나즈, 릴 나스 등 해외 유명 가수들과 손잡고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그러기까지 이들은 데뷔 이후 7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평균 26세의 나이답지 않게 집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

데뷔 3년만에 국내 음악프로 1위 2년후 美 ‘톱 소셜 아티스트’ 패키지 세계적 스타 압박감 해체 고민도

없다. 이제 뭐가 보여줄 때”라고 했다. 앨범 발표 하루 전까지 7시간이 넘는 혹독한 연습은 음악프로그램 1위라는 꿈을 이루게 했다. 앨범 제목 ‘화양연화’처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승(承)…‘우리 음악을 꾸준히’

2017년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이들은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다. 11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케이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자신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세계 대중음악사에 남을 순간이었다.

특히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은 세계를 겨냥한 기폭제였다. 데뷔 당시부터 꾸준히 활용한 SNS(트위터)가 가장 큰 몫을 했다. 이들은 개인이 아닌, 그룹 SNS로 하나의 계정을 통합해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다. 2016년 10월 첫 1위 이후 2017년 7월부터 134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2010년 12월 해당 차트가 신설된 이래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한국 첫 4년 연속 빌보드200 1위 ‘아미’와 함께 쓴 그들의 이야기 이제는 ‘그레미와 핫100 1위’다!

않는 채 극소수 친한 친구들만 만나는 일상. 월드스타로서 외로움을 처절하게 감당해왔다. 심지어 2018년 초 그룹 해체를 고민할 정도로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연말 한 시상식에서 이들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멤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가끔 휘청거리며 방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무게중심을 잡고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안다.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또 다른 청춘이기도 하다.

●결(結)…그래도 현재진행형

도전은 계속된다. 아직 이를 게 더 남아 있다. 자리를 내어줄 듯하면서도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고 선 그레미다. 또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도 노려볼 만하다.

향후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봐야 하기에, 완결될 수 없는 현재를 짧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교육·퍼즐

에듀월

‘꿈의 직장’ 프로젝트 시행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더 나은 기업문화 위해…근무시간 ↓ 연봉은 그대로”

최근 취준생들 사이에서 ‘기업문화’가 구직 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금전적인 것과 직결된 ‘연봉’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몇 년 사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화두에 오르면서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수평적 호칭 제도나 눈치 보지 않는 연차 사용 등 워라벨을 갖춘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들은 저마다 젊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월(대표 박병규) 역시 ‘좋은’ 회사로 손꼽힌다. 에듀월은 보다 나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에듀월은 지난해 6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에듀월은 근무시간을 단축했지만 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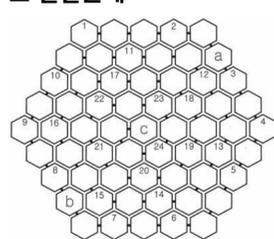
이 줄지 않아서 일반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듀월은 기존

출근 시간을 8시30분에서 1시간 늦춰 9시30분으로 변경했지만, 퇴근시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30분간 전 직원이 쉬는 ‘집중 휴식시간’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은 대폭 줄어들었다.

에듀월은 근무 환경 또한 남다르다. 본사 지하 1층에는 사내 복합문화 공간인 ‘에듀월역’을 운영하면서 로봇 바리스타 월리, 무료 스낵 코너 에너지바, 오락실, 안마의자 등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가공인 안마사 4명이 채용해 안마시설을 오픈해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 낱말문제



01.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쭉여 올리는 행위. 02. 물건값을 큰 폭으로 낮추어 파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3.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04.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05. 여럿이 다 같이 고르지 아니하게 조금씩 내밀려 있는 모양. 06. 겹질만 생겨 얹이 속에 들지 않은 곡식 등의 열매.

07. 이(利)가 되든지 해(害)가 되든지 간에. 08.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함. 09. 한데에 장작을 모아 질러 놓은 불. 10.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실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11.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 12.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따라서. 13. 물건 값 따위가 한없이 오르기만 함을 이르는 말. 14. 지상에서 공중으로 향함. 15. 두 손을 땅에 짚고 두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넘는 재주. 16.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음. 17. 재주 있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18.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 19.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하여 마련하여 둔 돈. 20. 정치적·사회적인 이유로 정부에서 부르지 못하게 한 노래. 21. 포탄이 곡선을 그리며 나가

게 쏘는 포. 22. 음식을 충분히 먹어 배가 부른 느낌. 23. 조신 영조 때, 강필리가 고구마의 재배법에 대하여 지은 책. 24. 보푸라기가 여기저기에 잘게 일어나 있는 모양.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쓴 다음 a, b, c를 이어붙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물이 됩니다.

